



오렌지카운티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지난 8일 Los Coyotes Country Club House에서 열렸다.

OC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열려

작은 힘들이 모여 위대한 성취 이룰 것

오렌지카운티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지난 2월 8일 오전 7시 30분에 Los Coyotes Country Club House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오렌지카운티 지역단체장 초청기도회는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렌지카운티 지역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부에 배 2부 특별간증 3부 만찬의 순서로 이어졌다. 박용덕 목사의 사회로 1부 예배는 김영수 장로의 대표기도, 나침반교회의 남성중창팀의 특별찬양,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의 설교, 합심기도 순으로 드러졌다. 잠인 30:24-2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민경엽 목사는 "우리들의 각자의 힘은 미약할 수 있으나, 작은 힘들이 모일 때

위대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며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적극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자"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박효우 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는 "오렌지카운티 42개단체가 기도로 한해를 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라며 "청마의 해를 맞이 해 말과 같이 힘차게 비상하는 각 단체가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호우 목사(영성담당 부회장)의 인도로 미국의 신앙과 경제복을 위해, 김기동 목사(신학담당 부회장) 인도로 교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민승기 목사(교육담당 부회장) 인도로 OC지역 단체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각각 기도한 후 정영수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간증시간에는 65지구 거주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영 김 집사가 특별간증을 전했다.

영 김 집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강통을 모아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11살 먹은 딸이 간질병에 걸려 온 가족이 힘든 과정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하게 해주셨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하원 선거에 출마했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 하원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에서 이기던 지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자금이 큰 벽이었지만, 여리고 성은 기도로 무너진 것을 확신한다"면서 "기도로 협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인규 기자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 기독인 선수들 '인간승리의 주인공'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이 2014를 상징하는 20시 14분(현지시각·한국 시간 8일 오전 1시 14분) 러시아의 휴양도시인 소치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13개 종목의 66명이다. 이들 중 기독인 선수는 12명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총재 엄신형 목사)에서는 선수단의 승리의 소식과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기독인 선수 12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기독인 선수 12명은 김동현·김선욱·서영우·석영진·오제한·전정린(이상 봅슬레이), 이규혁·이상화·이승훈(빙상), 김호준(스노보드), 최재우(모글스키), 최홍철(스키점프) 선수이다.

특히 기독인 선수들은 척박한 환경을 극복한 사연들이 있기에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우선 기독인 선수들 중 봅슬레이 선수가 유독 많다. 6명으로 12명의 기독인 선수 중 절반을 차지한다. 봅슬레이는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중에서도 불모지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중 김선욱 선수는 34살의 나이로 여섯 살 아들을 둔 엄마 선수다. 김선수는 '쭈마렐라'의 선두 주자로 주목을 끌고 있다.

기독인 봅슬레이 선수 모두가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환경에서 불철주야 노력해왔고, 이제 소치에서

불모지 종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며 뜨거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기독인 선수 중 특히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수는 지난 11일 여자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당당히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이다. 이상화 선수는 이미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금메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상화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 "한국 스키 100년 역사에 이상화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이상화 선수는 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일인자이자 세계기록 보유자인 독일의 예니 볼프를 제치고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이상화는 매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더니 2012-2013 시즌부터는 2년에 걸쳐 17번의 월드컵 레이스에서 16개의 금메달을 독식했다. 지난해에는 4번에 걸쳐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이상화 선수의 이러한 기록은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던 비인기종목이던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기독인 선수들 각자가 불가능 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하기 위해 소치를 향해 떠났다. 이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원로 언론인 이선주 목사 소천

원로 언론인이자 목회자인 이선주 목사가 지난 10일 소천했다. 향년 80세. 고 이선주 목사는 1974년 LA중앙일보 초대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코리아헤럴드 미주판 편집장, 동아일보 미주판 초대 편집국장, 크리스천헤럴드

드 편집장 등을 지냈다. 고인은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등 인생 후반기에는 목회자로 활동했다. 지난 2007년에는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고난과 영광의 100년' 상-

하권을 출판했다. 장례식은 14일 오후 3시 천국환송예배, 15일 오전 10시에 하관예배가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27501 S Western Ave, Rancho Palos Verdes)에서 열린다. >문의: (213)353-0777 박창민 기자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 기독인 선수 (가나다순)

나라정비 ASE 유압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H.R.3590 Religious Exemption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CMM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단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미국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건강보험이나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 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한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내용				
의료비 혜택 내용	예방검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1 unit (1인)	\$ 175	\$ 135	\$ 80	\$ 40
2 units (2인)	\$ 325	\$ 260	\$ 160	\$ 80
3 units (3인 이상)	\$ 425	\$ 385	\$ 240	\$ 120
본인부담금 (1인 기준)	\$ 500 / Year	\$ 500 / Incident	\$ 1,000 / Incident	\$ 5,000 / Incident
질병당 의료비지원한도 (브라더스키퍼 가입)	unlimited	unlimited	질병당 최고 \$1,000,000	질병당 최고 \$1,000,000

전국적으로 20만 크리스천 가정과 단체는 건강보험대신 의료비나눔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화 213-700-9212 문의 www.christianmutual.org

CMM은 건강보험회사가 아니며, H.R.3590 Religious Exemption에 의한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입니다.

누구를 위한 목회인지 알았을 때 기적 베푸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나’ 를 내려 놓아야……”



돌로스선교교회가 6일부터 서울열방교회의 정성진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설교하는 정성진 목사

지난 2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 및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 돌로스 선교교회가 6일(목)부터 나흘간 서울열방교회의 정성진 담임목사를 초청해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진행했다.

부흥회 둘째 날 좌석을 가득 매운 성도들은 10주년을 맞아 기대감에 부푼, 열정적인 모습으로 감사의 음성에 귀기울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4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정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핵심 요소를 “중심하신 그리스도, 공동체, 전도, 리더십, 양육, 상호 책임”이라 분석한 후 자신의 목회 체험으로부터 나온 진솔한 고백을 나누며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 결심이나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가능함을 역설했다.

그는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교회의 모든 중심과 핵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꼽았다. 그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200나라에 200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담겨 있다. 두 번째는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니라”라는 말씀을 제시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삼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종 부리듯 부리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물으며 회개를 촉구했다.

“저는 고아처럼 자랐다. 학교 다니며 ‘미미미양가’, 대학은 ‘CCC출신이다. C학점, D, F학점을 받았다. 그러던 제가 29세 때 교회를 개척한 후 2년 마다 더 큰 건물로 이사하자 친구들이 이를 신기해했다. 작심하고 금식과 철야기도를 드렸다. 거의 1년의 1/3을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다. 한번도 박수를 받지 못한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박수를 받는 인생이 됐다.”

“어느날 설교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오고 임신한 사람 마냥 속이 울렁거리더니 결국 쓰러졌다. 교인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가 동공을 확인하고 무릎 반사 검사, MRI 촬영을 한 후 뇌수종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추석이 멀지 않고 교인들이 염려돼 수술을 미루고 병원을 나왔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생각났다. 그 분은 서울대 상대 출신인데 이상하게 재정 보고를 가끔 틀리게 하셨다. 작은 단위가 아니라 몇 백만원의 잘못 계산해서서 어느날 집사님께 여쭙었다. 그 집사님이 ‘사실은 군대에서 의기사 제대를 했어요. 뇌수술을 해서 정신이 캄캄캄하고 뇌수술 후 유증으로 간질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다. 앞이 캄캄해졌다. 집으로 향하던 택시를 돌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으로 향했다.”

“기도원에서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란 생각만 가득했다. 갑자기 머리가 푹니바퀴가 돌아가듯 어지럽더니, 그 어지러움이 멈추고 개운해졌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아들아, 지금까지 네가 목회한 것은 나를 위한 목회인가 아닌 너를 위한 목회였다.’ 그 말에 거친 목소리로 항의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철야, 금식하며 목회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다. 두번째 음성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이 왔다.”

“교인들을 속인 게 하나 있었다. 목회를 하기 전까지 별 볼일 없는 마이너 인생을 살았다. 목회를 하며 잘 되니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모르고 있었다. 겸손한 척 했지만 사람들에게 관참은 목사라는 인정받고 싶고 나를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깊은 깨달음이 왔다. 말로는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겠다 하지만 사실은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 이후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교회 터를 넓히고 교회를 키워왔지만 한 사람의 내면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의 제 고백은 ‘제 말로, 노력으로, 설교로 어린 아이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령님, 움직여 주세요. 성령님

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 변화시켜 주세요’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어, 입술의 고백과 다른 삶을 사는 거짓된 모습을 꼬집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나. ‘주님, 이것 해주세요’하며 내가 왕이고 주님을 심부름꾼으로 삼아 살아왔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 주인이 되면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목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께 구원 받고 왜 이전 방식으로 살려 하는가. 은혜로 구원받고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며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삶과 자신을 중심 삼은 삶을 설명했다. “아침기도 때 딱 두 가지만 기도하면 된다. ‘주님, 뭘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고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이어서 그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을 예로 들며 하나님은 ‘공동체’로 세상을 창조했으며, ‘공동체’로 일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과 누가, 바울과 바나

바, 아담과 하와 모두 공동체였다. 사탄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아담과 하와 사이를 사탄이 분열시키고,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했다”며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동체성이 서로를 책임지는 ‘상호책임’과 연결되며 이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했다. “한 가족이라면 어떤 이가 잘 하는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박수 쳐준다. 영적인 가족공동체인 교회에서 누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사심 없이 박수 쳐줘야 하는데 한국의 나쁜 전례가 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칭찬과 격려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쉬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포장마차만도 못한 게 교회이다. 속에 있는 애기를 못한다. 고통과 눈물을 교회에서 나눌 수 없다면 누구와 나눠야 하는가.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자기 중심적이라 해도 교회 공동체는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고 일어날 때까지 마음을 같이 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말씀 이후 교인들은 자신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부흥회를 마쳤다.

주디 한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씬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4년도 학생 모집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 ◆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 ❖ 신학학사
 - ❖ 기독교 교육학사
 - ❖ 종교 음악 학사
 - 고졸 및 동등학력 자
- ◆ 대학원과정(Master) 3년
 - ❖ 기독교 교육학사
 - ❖ 종교 음악 석사
 - ❖ 신학석사
 - ❖ 목회신학 석사
 -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 박사과정(Doctor) 2년
 - ❖ 기독교 교육학 박사
 - ❖ 목회신학 박사
 - ❖ 신학 박사
 - ❖ 종교철학 박사
 -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신학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4년 가을학기 교수모집

- * 기독교 윤리학
- * 성경적 리더십
- * 이단 종파

www.mrtsusa.org

- 교무처: (323)428-7878 ● 교학처: (213)999-1307
- 한국 사무소: 070-7883-3011 / 02-888-0672

2014년 Spring Semester Time Table 봄학기 강의 과목

Subjects	Professor
◆ 조직신학(신론) Systematic Theology II	현연섭 박사 Dr. Youn Sup Hyun
◆ 구약 역사서 O.T. Historical Books	김 철 박사 Dr. Chul Kim
◆ 기독교 교육학 1 Christian Education I	임영호 박사 Peter Yongho Yim
◆ 교회음악 2 Church Music II	정귀숙 박사 Chung Kwi Sook
◆ 고린도전후서 I, II Corinthians	김경수 박사 Kyung Soo Kim
◆ 전도학 Evangelism	박상목 박사 Dr. Sang Mok Park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제47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 및 이사회 감사예배 후 기념촬영.

제 47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정중윤 목사)가 임원 및 이사회 감사예배를 8일 오후 2시에 목사회 사무실에서 드렸다. 1부 예배에서는 사회 백지영 목사(수석부회장), 기도 김재권 장로(이사장), 성경봉독 이우형 목사(부회장), 설교 진교륜 목사(이사), 광고 김관진 목사(총무), 축도 정중윤 목

사(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한 진교륜 목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해 목사회를 통해 남가주 교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47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운영 방향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목사 신분

증 발급을 위한 품위 유지 △가맹점과 보험사 및 상호회와의 협력을 통한 복리증진 △목회자에 대한 각종 편의의 제공 및 복지향상 방안연구 △목회자 네트워킹을 통한 유익한 정보 제공 △시대에 부흥하는 회칙개정을 위한 회칙 수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한미 기독교관 건립의 지속적인 추

진 및 각계각층의 협력체제 구축 △목회자를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남가주교회와 연합사역 추진 및 협조체제 확립 △원로목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위로행사 추진 △차세대 교회 지도자 육성방안 다각적 노력 △목회자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고층처리위원회 신설 및 활동방안 연구

△3.1절 기념예배 및 행사 △6.25 참전용사 추모예배 및 행사(미군 한국전 참전용사 초빙) △성가합창제. 목사회 수석부회장 백지영 목사는 "다음 사업으로는 목회자 복리 증진을 위해 가맹점과 보험사의 각종 혜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약자 위해 싸우던 이민목회자의 딸, 한인 여성 최초로 선출직 판사 도전

앤 박 검사 LA수피리어코트 판사에 출마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LA수피리어코트 판사에 출사표를 던진 앤 박(Ann H. Park, 한국명 박향현) 검사가 갑자기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다소 급히 말을 이어갔다. 범죄와 20년 간 싸워온 베테랑 검사가 '한인 여성 최초의 선출직 판사'라는 과업에 도전하며 한인 동포 사회와 만나는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LA수피리어코트의 선출직 판사에 도전하게 된다.

그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 내에서 판사의 힘은 막강하다. 현재 재판장에 서 있는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건의 판례가 향후의 사회의 입법, 행정, 치안, 복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LA수피리어코트의 판사 480여 명 가운데 한국계는 마크 김 판사, 태미 류 판사, 하워드 함 판사, 킴로스 정 판사, 리사 정 판사, 도로시 김 판사 등 6명뿐이다. 그는 전세계 한인사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LA에서 여성인 자신이 최초로 선출직 판사에 당선될 경우, 한인사회의 힘을 주류사회에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한인 차세대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그들의 공적 진출이 활성화 될 것 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는 "이제 한인사회가 한인을 이해할 수 있는 판

사를 배출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한인이나 밀어 달라"는 소리가 아니다. 차세대 한인을 향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못해 유별난 수준이다. 그는 지난 3년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OC지부에서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 왔다. 이곳에서 많은 한인 여고생들을 만나 그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면서 한인 차세대들을 향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터였다. 이민자봉사단체인 한미연합회(KAC), 정치단체인 한미민주당위원회(KADC)에서 적극 활동해 온 이 유도 여기에 있다. 20년간 LA 검사로 재직하며 40여명의 한인 검사 중 현재 가장 고참인 그는 한인검사협회도 창립해 더 많은 한인 후배들이 공직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인들만을 위한 판사가 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는 "법은 보호를 원하는 이들에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긴다"는 미국 법정의 '쓰린 현실'을 바로잡을 바른 판사가 되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박 검사 자신이 과거 약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또 그런 약자를 위해 싸워 왔기 때문 일 것이다. 1980년 17세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이민 와 당시 어려운 환경과 약조건을 극복하며 학업에 몰두해 2년 만에 UC버클리에 입학했고 졸업

후, 곧장 헤이스팅스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가난한 나라의 키 작은 동양 소녀가 이민을 오자마자 명문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으니 사실상 성공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1992년 LA폭동을 목격하고 사회적 '약자'인 한인의 아픔을 나누고자 돈 잘 버는 변호사를 포기하고 북가주의 한인 봉사단체인 이스트베이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 디렉터로 들어갔다. 다시 약자의 편에 선 것이다.

그러다 그는 LA 검사로 발탁돼 여성,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검사로 자리를 굳혔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약자를 돕는 검사를 자처했지만 역시 검사는 검사다.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끈질긴 노력으로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 냈으며 증인이 살해되고 본인의 생명이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웠다. 누명을 쓴 피의자를 구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약자에게 부드럽지만 범죄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는 강골 중 강골인 그의 성격은 목회자인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2012년 소천한 故 박은수 목사다. 그는 재건교회의 원로급 지도자로 부산에서 목회하던 중 이민목회에 소명을 받고 북가주로 이주했다. 재건교회는 일제 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옥됐다 광복을 맞이해 출옥한 소위 출옥성도를 중



앤 박 검사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선출직 LA수피리어코트 판사에 출마했다.

심으로 한 보수적 교회다. 정면돌파도 박 검사의 특기다. 그는 출마 전 당선 가능성을 놓고 여러 컨설턴트를 만난 결과 앤(Ann) 이라는 이름, 여성이라는 점, 검사라는 직업, 현재까지의 경력 등이 미국 주류사회 유권자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 그러나 한인 출신이라는 것이 다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제가 한인인데 당선을 위해서 한인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수 차례나 쏟아냈다. 반기독교적 미국의 현 정서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는 것도 "나는 목회자의 딸"이라는 탄탄한 영적 자부심 때문일까? 그의 공식 이력에는 자

신이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10년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것까지 당당히 넣어 놓았다. 현재 박 검사는 6월 선거를 앞두고 25만 달러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4월 동포간담회에는 강일한 후원회장(LA한인총재대회장,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을 비롯해 LA한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미대한체육회, 호남향우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등의 관계자들을 포함해 약 50여 명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으며 현재까지 약 6만 달러가 모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식적으로는 마크 김 판사, 태미 류 판사, 데이비 웨슬리 판사, 라티노검사협회도 박 검사를 지지한 상황이다. 한편, 13일 오후 6시 한인타운 내 옥스포드플래스 호텔에서 박 검사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연이 직접 캔 **천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마리화나 합법화에 美 교계 “우리 몸은 성령의 전”

존 파이퍼, 러셀 무어, 새뮤얼 로드리게즈 등 반대



(왼쪽부터) 존 파이퍼 박사, 러셀 무어 박사, 짐 데일리 회장, 새뮤얼 로드리게즈 회장.

전 미국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계 지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연방법 상에는 마리화나가 중독성이 있는 위험 약물로 분류돼 있으며 어떤 목적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은 대체로 마리화나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의료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오락용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박사는 “마리화나가 종종 카페인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카페인에 상충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반면, 마리화나는 이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파이퍼 박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구절을 들며 “오락용 마리화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구절을 흡연, 음주, 오락용 마리화나는 물론, 나태함, 과식, TV 과다 시청 등에도 적용했다.

또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약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를 들어 “우리는 ‘경험 많은 죄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권면했다. “마약류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그들과 함께 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남침례회(SBC)의 대표적 신학자인 러셀 무어 박사(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는 “술은 미국 사회에서 금지되기 이전부터 편재해 있었다. 그러나 마리화나는 그렇지 않다. 만약 마리화나가 어떤 질병에 최고의 처방제라면 모르핀이나 다른 신경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제 속에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전미 히스패닉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의 새뮤얼 로드리게즈 회장은 “마리화나는 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둘 다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리화나는 우리가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단체인 포커스 온더패밀리의 짐 데일리 회장도 “마리화나에 의료 목적의 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오락용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유명 청소년 사역 단체인 데어투쉐어(Dare 2 Share Ministries)의 그렉 스티어 대표는 “수만 명의 청소년을 섬기는 단체의 대표로서 이 문제는 나에게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며 “청소년을 자녀로 둔 아버지이자 목회자로서 청소년들이 마리화나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돕고 싶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연방법 상 마리화나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각 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며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 규정은 사용 목적, 소지, 재배, 불법성 여부 등 주마다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앨라배마 주는 판매는 물론 운반하거나 소지하고만 있어도 불법이다. 재배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애리조나, 앨라배마 등은 의료 목적으로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소지하거나 운반하면 중범죄로 다룬다. 그러나 아칸소 주는 경범죄로만 본다. 버몬트 주에서는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은 아니지만 1온스 이하일 경우 소지해도 불법이 아니며 그 이상을 갖고 다녀도 교통법칙 수준 수준의 벌금만 낸다. 캘리포니아도 의료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만 8온스 이상 소지는 불가능하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주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다. 특히 콜로라도 주는 전 미국에서 최초로 의료 목적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를 승인했으며

워싱턴 주는 정부 차원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이를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어차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해 판매세, 면허세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전 미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도록 각종 소송과 주민투표 상정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의 여론도 마리화나 합법화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김은 더욱 거세다. 1969년 갤럽의 조사 당시에는 미국인의 84%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보고 있었지만 1985년이 되면 73%로 떨어졌다가 2001년엔 64%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3년엔 마리화나에 반대하는 인구가 39%, 찬성하는 인구가 과반수를 넘는 58%에 이르게 됐다.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마리화나가 담배나 술보다 중독성 및 의존성이 약하며, 특별한 폭력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마리화나보다 더 해로운 담배나 술을 허가하면서 마리화나만 금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마리화나에는 담배와 비교할 때 약 4-5배의 타르, 약 1.5배 가량의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하며, 흡입 후 최대 하루 동안 집중력에 장애를 일으켜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 및 인지능 감퇴, 무기력증 및 환각 등 정신적 증상을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까지 흡입하게 되는 일종의 관문(Gateway)이 될 것이란 우려다. 물론 이 관문 이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술 담배는 되는데 왜 마리화나는 안 되냐”,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면 다른 마약류는 오히려 억제된다”는 식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김준형 기자

미국 법무부 동성결혼자 권익확대 지지

미 법무부 에릭 홀더(Eric Holder) 장관은 지난 8일 한 동성애자 권익단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서, 동성결혼을 전 통적인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홀더 장관이 10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동성부부에게 일반부부와 완전히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모든 법무부 직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사법부 관계자는 밝혔다. 홀더 법무장관은 인권캠페인(Human Right Campaign)의 뉴욕시 갈라에 참석,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나, 미 법무부 소속 직원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연방정부의 법 아래에서, 동성결혼 부부에게도 이성결혼 부부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NN의 보도에서 홀더 법무장관은 동성부부의 파산 신청권,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

리, 9.11 테러 등의 피해를 입은 동성 배우자에게 사망보상금·교육비를 지급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혜택을, 동성결혼을 허용한 34개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연방정부가 사법권을 가진 주에서만 적용된다.

홀더 장관은 “1960년 시민권리운동 당시와 같이,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위해 이 세대가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순간에, 법무장관으로서 법무부가 단순히 방관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다. 퍼킨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 사법부는 동성결혼에 대한 승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이번 행정부의 무법주의에 대한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미국 최대 청소년 선교단체

해외로 사역 확장 발표



액콰이어 더 파이어 집회 현장.

미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 선교단체인 틴매니아미니스트리즈(Teen Mania Ministries)가 해외로의 사역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비전에 맞춰 이름도 틴매니아인터내셔널(Teen Mania International)로 변경하기로 했다.

틴매니아는 그동안 미국의 가장 유명한 청소년 집회 중 하나인 ‘액콰이어 더 파이어(Acquire the Fire)’를 개최해 왔다. 이 집회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대중문화의 영향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 아래 수백만 명의 미국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왔다. 단체는 미국 내에서만 열여섯 이 집회를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개최해 전 세계 청소년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인 론 루스(Ron Luce)는 “지난 수년간 내가 해외에서 만난 사역자들은 내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은 미국 미디어와 음악을 접하고 있고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다. 이 나라에서 사역해 줄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 왔다. 비슷한 질문들을 다양한 해외의 사역단체들로부터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기도하게 했고 전 세계의 청소년 세대들을 바꾸기 위한 열정을 심어 주었다”며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바로 이러한 비전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틴매니아는 ‘액콰이어 더 파이어’ 집회 외에도 ‘글로벌 익스페디션(Global Expeditions)’이라는 단기 선교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50여개 국가에 7만여 명의 10대들을 파송해 미국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세계를 바꾸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 틴매니아는 톤과 케이트 루스 부부가 1985년 창립한 이래로 미국 최대의 청소년 선교단체로 성장해 왔으며 본부는 텍사스 주 가든시티에 소재해 있으나 사역의 해외 확장을 위해서 달라스로 이전 예정이다. 최근에는 킹스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인정인 1년간의 교육과 사역훈련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사역을 보이고 있다.

순헌정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CALIFORNIA ARTS UNIVERSITY

(School of Contemporary Music) Sevis I-20상담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대학원(실용음악)

CAU 인가(일반 Approved 대학교)
BPPE(Bureau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California Education Code #: 94866 or 94890
California School Code #: 66695760

US Federal IRS/ California State/ Fullerton City:
Non-Profit Organizations

한국을 비롯한 92개국 학력인정
State of California Secretary
Apostille processed for CAU Students

특별 수료증과정
음악치료사/ Music Therapist
상담전문가/ Counselor
찬양사역자/ Praise & Worship Leader

CAU 대학원 입학자격: 4년제 대학교 졸업자
CAU 대학원 졸업 및 학점: 2년/ 48학점
CAU 학위: 실용음악학 석사
Master of Arts in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CAU 전공과목
Musical Instruments:
Keyboard(jazz piano), Guitar, Base, Drum,
Brass, Percussion, Strings, Woodwinds,
Winds, Reeds, etc.
Composition, Film and Digital Music
Vocal
Recording
Music Business

연방정부 및 주정부 학비신청 및 보조

CAU 자체 장학금
음악경력장학금 / 성적장학금
그랜트장학금 / 선교및교역자가족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 사회봉사자장학금
장애인장학금 / 유학생장학금 / 특별장학금

***실용음악 교수 및 레슨 강사 초빙**
모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자
제출처: lovecsk@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연세드신 분, 주부,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반 신설.
·고졸 및 대학중퇴자를 위한 특별반 신설.






213-700-7575, 267-251-5511(영어) / 070-7885-0289(from Korea) / e-mail: info@cau-edu.us
Campus: 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lifornia 92833 Website www.cau-edu.us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사도행전 19: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외도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성령 받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철저히 하고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바울은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죽기를 작정하고 복음전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에 감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세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순간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증인 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고린도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세고 큰 마귀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니야 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눈에서 고기비늘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이 온전히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바울을 사도될 자격이 없다며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의 간교한 수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보면 사도바울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는 그곳에서 그의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취직할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때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도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 이들도 고린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먼저 와 있었던 이들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바울을 고린도로 가라 명하셨고 그 바울의 선교 뒷바라지를 위한 사람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되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자 아볼로를 전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더 많은 선교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점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셨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

느냐”고 하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는 회개운동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표시로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혼이 진리안에 결실되어 하늘나라 창고로 추수해 들고 성령을 받지 못한 쭈정자들은 거치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아볼로의 제자였던 열두 사람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점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성령에 붙잡힌 삶입니다.

헨리와 정육, 교만, 허세, 자존심 같은 것들은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시게 되는 것

들입니다.

만일 끝까지 성령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신 것 같이(삼상 16:14)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후회될 일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 성령의 지시, 인도,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살아왔는지를 자문(自問)해 보시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 손에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불드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의 제물되기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며(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행2:38-39)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이 되시고(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롬8:16)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17:24).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고후13:5)”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선: Sex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박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담임목사 청빙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으로 미국인회중, 라티노회중과 함께 사역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향하며 다문화목회에 소명이 있는 한인회중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 다문화 사역을 이해하고 비전을 가진 분
-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목회자
-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 분
- 3년 이상 목회 경험자(부목사 경력 포함)
-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이상) 졸업한 분
- 미국장로교단(PCUSA)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목사가 되기에 걸림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한글, 영문)
- 자기 소개서(한글, 영문)
- 최근 설교파일(음성 혹은 동영상) 2개이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http://www.weppc.net에서 다운 받으십시오. 등록과 접수 절차도 동일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용량이 큰 설교 파일이라면 Hightail 등의 대용량 파일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보내주시지요

<제출 기간> 2014년 2월 28일(금)까지
<제 출 처> weppcsearch@gmail.com

파사데나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앞을 향하여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한 오명을 평생 떠안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돕는 손길도 많았지만, 반대로 그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를 죽이기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맹세하는 “결사대”들도 있었고, 교인들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던 것은 치명적인 육신의 장애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찌르는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세 번이나 치유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고후 12:8). 그러나 사도바울이 만약 자신의 지나간 부끄러운 과거와 장애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결코 우리가 아는 사도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뒤엎은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 달음질치려는 결단”(고전 9:26)에 있었습니다. 지나간 실수나 오류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적인 기록을 뛰어넘어 앞으로 달려갈 때만 바울과 베드로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갑시다!

챔 피 언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미국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스포츠, 2014년의 챔피언 시애틀의 시호스 팀의 압승으로 막이 내렸다. 시애틀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어떤 식당은 손님들에게 공짜로, 어느 바는 맥주값을 받지 않았다. 앞으로 대대적인 페레이드는 물론 경기의 전술과 팀워크 그리고 개인적인 묘기를 하나 하나 열거하며 선수들을 영웅으로 추켜 올릴 것이다.

경기 시간에는 전국 도로의 차가 줄고 TV 앞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할 때는 천장이 떠나가게 함성을 지르고, 실수하면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연상 맥주와 포테이포칩으로 감정을 노출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매우 역동적이고 스피드가 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개척정신이 잘 나타나기도 하지만 각기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도 팀이 함께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며 노력하는 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잘 나타내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에서 쥘고 넘어갈 점이 있다. 챔피언이 되기까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피 눈물나는 훈련을 했을까! 너무 힘들어 중간에 하차하는 선수도 많다고 한다. 경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승자끼리 붙을 때는 호랑이와 사자들의 싸움같다. 그러기에 박진감이 있고 스릴이 있다. 선수들이 최고의 승자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다 쓰러져 들것에 또는 차에 실려

넌 나와의 싸움이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사사건건 경쟁하고 싸운다.(참고 눅12:19; 롬7:15-25) 그들은 처음부터 앙숙이고 Win Win 이 될 수가 없다. 정치판에서 여야의 갈등과 싸움은 저리 가라. 생존의 문제며 선과 악의 격투며 천당과 지옥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은 스포츠의 승자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하다. 사도 바울은 경기와 연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운동선수들은 평생 시 육체적으로나 행동으로 절제의 생활을 하고 일단 경기장에 나가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린다. 그 중에서 승자가 가려지고 승자에게는 큰 상인 월계관을 받지 않느냐! 기독교인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더욱 절제하고 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다.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은 쉽지 않아서 오랜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돈과 명예, 그리고 성의 스캔들에 말려들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챔피언은 땀, 눈물 그리고 피의 산물이기에 귀하고 소중하다. 금년에도 스포츠의 챔피언이 된 팀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교인들은 천국에 가는 경기에서 최후의 챔피언이 되기를 바란다. 그 경기에는 내 편 네 편이 없다. 앞에 있는 십자가만 목표로 자기의 코스를 최선을 다해 달리면 되는 것이다.

학교 선택에 관한 질문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매년 이맘 때면 등록에 관한 학부모의 문의를 많이 접수하는데, 거의 모든 부모가 비슷한 질문을 한다. NCA같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비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다. 물론, 학교의 역사와 선생님의 자질, 그리고 학업분위기에 대한 질문도 종종 받지만, 아이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선 위와 같이 지금이 평범한 질문의 답은 큰 의미가 없다. 아이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선 우선 다음과 같은 부모와 자녀의 “내신평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의 성격은 어떠한가?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을 선호하는가? 큰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 및 기회를 원하는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나 미션을 갖고 있는 학교를 원하는가? 우리 아이는 별다른 도움없이 혼자 일을 잘 처리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교사나 카운셀러의 도움이 필요할 학생인가? 우리 아이는 선생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원하는가, 아니면 선생님과 거리를 두길 원하는가? 우리 아이는 어떤 교육방식과 가르침(instruction)에 잘 반응하는가? 부모로서 어떻게 교육에 참여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학교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아이와 함께 교육의 목

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눠보았는가? 단기적, 그리고 중, 장기적 목표가 무엇이며, 아이와 부모가 동의하는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아이에게 적합한 학교를 찾기 어렵다. 한인 학부모의 경우 대학진학 성과에 초점을 두고 학교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자녀의 자질을 개발시키는 교육의 터를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전학 내지 타 학교 입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있는 부모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한다:

학교의 ESLR(Expected School-wide Learning Results)는 무엇인가? (‘에슬러’란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목

표 및 성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ESLR가 부모와 자녀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같은가? 각 학교의 반의 규모는?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선생님들은 어떠한 교육이론(theory)과 원칙(principle)을 토대로 학생을 지도하는가? 학생들의 학업 성과는 어떠한가? 만약 고등학교라면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 및 대학진학 성과는 어떠한가? STAR 내지 스탠포드 시험 퍼센타일은? 학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참고로, 단점이 없는 학교는 없음) 학교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요구하며, 부모는 또 어느 정도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사립학교일 경우,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외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학비외에 타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 기독교학교일 경우 어떤 교재와 어떤 방침을 토대로 신앙교육을 제공하는가? 특별히, 학교의 ‘에슬러’에 대한 질문은 빠뜨리지 말아야한다. 가능하다면 ‘에슬러’를 문서로 받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끝으로 한 학교만 방문하지 말고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가장 적합한 학교를 찾는 것이 현명함을 잊지말자.

세계 최초! 최대! **닥터-니온스** 초강력 음이온 매트!
매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신비의 음이온 힐링 매트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콘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며 혈액순환을 높여줌
 통증 완화 및 면역력을 강화함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초당 8백 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습이나 폭포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120 LARGE (+Tax)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Total generates over 8.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MIRACLE!!

100% MONEY BACK GUARANTEE!



매초당 3,000개 음이온 발생
Per Cubic Centimeter

Medical Grade Silicone

5.5 MILLION

RAISING ION
STRENGTH | ENERGY | BALANCE
Tourmaline Pure Appl. Technology

Product Information
Dr-NIONZ LARGE MAT
100% x 100" 34" x 4 1/2" 18"
Color: Blue
Weight: 23.1kg
Designed in the USA
U.S. Patent # 7,812,882

숲속의 숙면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통증 완화 및 면역력을 강화함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초당 8백 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습이나 폭포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70 MINI (+Tax)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Total Generates Over 4.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50 Year SATISFACTION GUARANTEED

확실한 효과!

고국방문 최고의 선물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

신비의 초강력 Dr-Nionz 을 사용하신 분들의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순환 만성피로가 개선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불면증 쾌적한 숙면과 머리가 개운합니다 ★ 수족냉증 손발 저림 과 통증완화 손과 발이 따뜻해집니다 ★ 전립선 화장실 횟수가 줄어들며 효과를 보십니다 ★ 중풍마비 놀랍도록 빠른 효과를 봅니다 ★ 타박상 통증완화와 치유가 빠릅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레르기 빠른 효과로 콧물, 눈물, 재채기가 사라집니다 ★ 아토피 가려움과 진물이 사라지며 엄청 빠른 효과를 봅니다 ★ 탈모증 놀라운 효과를 보십니다 ★ 천식 호흡 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 쥐나는 다리 고통에서의 해방! 다리 쥐가 사라집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통증완화와 빠른 회복 |
|--------------------------------------------------------------------------------------------------------------------------------------------------------------------------------------------------------------------------------------------------------------------------------------------------------|-----------------------------------------------------------------------------------------------------------------------------------------------------------------------------------------------------------------------------------------------------------------------------------------------------------|

Dr-Nionz 무독성 100% 메디컬용 실리콘 음이온 매트입니다

초강력 Dr-Nionz 의 신비롭고 놀라운 빠른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단 한번의 구입으로 50년을 건강히 사용하십시오 100% MONEY BACK GUARANTEE!

Dr-Nionz 의 탁월한 효과를 보신 고객께서는 선물용으로 3-4 차례 재구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Professional KN9003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Zero Gravity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후지타만의 발바닥 롤러 안마

5 year WARRA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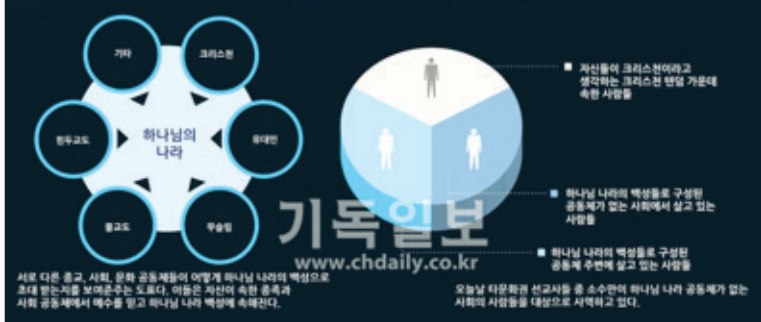
SALE **\$4,200** (+Tax) **풀옵션!** (리리부터 발끝까지)

Reg. \$6,499.00

\$175/월 2년 무이자 (+Tax)

Professional KN9003 은 일반 가정용 마사지 체어가 아닙니다. 전문가로부터 전신 안마를 받으실 분을 위한 특별한 전문 마사지 체어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경험하세요**

선교사 배치 불균형 해결하려면... 본국 교회의 인식 전환 필요



자료제공=김요한 선교사

인사이더스선교회 대표이자 아시아전방개척선교협의회·학회(AFMI/ASFM) 코디네이터인 김요한 선교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복음전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텐덤 가운데 속한 사람들과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머지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등 크게 셋으로 나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 시대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며 "예수님의 선교전략은 분명 내방자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방인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는데, 이방인, 유대인은 오늘날에서는 이들이 타고난 종족, 종교, 문화, 사회공동체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김 선교사는 "유대인, 믿는 자들은 언제나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먼저 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비율, 초대교회의 사역으로부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직 크

리스텐덤을 경험하지 못한 종족이나 사회 공동체들을 구태여 크리스텐덤 구조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수고는 아이러니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 불교, 힌두교, 신도, 유대교 및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살아가는 종족과 사회공동체이다. 굳이 세상과 분리되고 자신의 사회 공동체와 격리된 상태로 세상과 타협한 많은 '명목적 신자'들을 만들 것도, 그들을 다시 세상에 존재하도록 제자훈련을 시킬 것도 없다는 것이다. 김 선교사는 "그것은 이미 크리스텐덤과 크리스텐덤 주변에 살고 있는 지구 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하게 된 대부분의 종족들이 이전에는 거의가 정령숭배 및 무속, 부족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오늘날 선교는 많은 경우 자신의 종교, 사회, 문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초대받는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선교사는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선교사역들은 크리스텐덤 구조 가운데 사람들을 들여와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위 타문화권 사역을 한다고 하는 현장 사역자들의 사역적 불균형도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사 배치의 불균형을 선교사 재배치 운동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나, 본국의 파송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론의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송교회들이 선교사들에게 크리스텐덤 구조적 사역의 확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온 세계의 복음화 상황을 살펴볼 때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성은 분명해 보인다"며 "선교적 교회 이슈를 다룰 때에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해야 할 것'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전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일... 교회는 선교의 '대행자'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요청

인사이더스선교회 대표이자 아시아전방개척선교협의회·학회(AFMI/ASFM) 코디네이터인 김요한 선교사는 최근 전방개척선교저널(KJFM)에 '크리스텐덤(Christendom)에서 선교

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글을 게재했다.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아테아 포럼에서 발제할

예정인 이 글은 전통적 교회론에 기초한 선교가 선교적 교회론으로 전환돼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전통적 교회론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전방개척선교

(Frontier Mission)' 가운데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설명에 앞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세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인간의 이성 빛에 의존하는 계몽주의 시대엔 미신, 미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개화'에 역점을 둔 계몽주의 사상의 흐름이 있었다"며 "이에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조직화, 체계화, 근대화하는 '절대적 구조' 및 성장 지향주의를 갖게 됐고 이는 모더니즘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균열이 일어났고, 상대주의와 불확실주의가 기초가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발현했다"고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계몽주의는 사실상 제국주의와 함께 소위 기독교왕국(Christendom)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시대와 맥을 같이 했다"며 "그 마지막 단계에 공산제국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빗 보쉬(David Bosch)나 필립 켄킨스(Philip Jenkins) 같은 학자들이 이런 시대의 결정적 변화들에 대해 잘 기술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시대 변화와 사람들의 사고를 담은 문화를 결정적으로 사용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대는 더욱 짧은 주기로 바뀌어 포스트-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섰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선교사는 "전 지구는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 나라 구별 없이 이윤 추구나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신유목민(New Nomadic) 시대가 되었으며, 정보, 통신, 교통 발달의 가속화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폴 허버트(Paul Hiebert)는 이를 포스트-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간격도 세분화되고 다양해졌고, 좁아진 지구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공존하거나 새로운 마이크로 동질 집단(Homogeneous Unit)들이 등장하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선교사는 기독교 세계를 말하는 크리스텐덤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하면 서구 크리스천들이 '주 문화'를 지배한 구조적인 기독교의 전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립 켄킨스는 서구권 또는 북반구 중심의 기독교를 크리스텐덤이라 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비서구권 또는 남반구 중심의 기독교를 포스트-크리스텐덤으로 분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키피디아에서 크리스텐덤은 전 세계적 크리스천 공동체, 또는 기독교 지배적

문화 및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를 지칭한다.

그는 "그러나 교회론 관점에서 좀더 좁은 의미의 크리스텐덤은, AD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국교화, 제도화되면서 명목상(Nominal) 신자들을 양산하게 된 기독교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적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 걸친 크리스천 공동체 및 기독교에 속한 사람'을 일컫고, 역사적 관점에서는 보통 '기독교 세계가 이교주의, 무슬림의 위협 가운데 지정학적 힘을 나타냈던 중세 및 근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또 단순히 기독교 다수 국가나 기독교가 국교이거나 지배적인 나라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크리스텐덤 교회론에서 선교적 교회론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기에 앞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선교적 교회론에서 언급된 '교회'의 의미를 소개했다. 선교적 교회론을 소개하는 대표적 홈페이지(www.friendofmissional.org)에서는 여기서 교회가 건물이나 교파, 물리적 위치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인을 삼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김 선교사는 "사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건물이나 예수 신앙 공동체인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신앙공동체보다 먼저 건물을 떠올리는 왜곡된 교회론을 갖게 된 것은 크리스텐덤 구조주의의 폐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교적 교회는 이런 크리스텐덤 교회론의 한계와 서구 기독교의 쇠락 상황에서 시대적, 문화적 패러다임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선교적 교회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에는 에큐메니칼의 프린스턴 학자들이 저술한 '선교적 교회'가 기폭제가 됐지만, 이에 근본적 영향을 끼친 학자는 데이빗 보쉬나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이들이 한 일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통찰력을 참조하여 토마스 쿤(Thomas Kuhn)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교회의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교는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라며 "교회에 속한 선교들(missions)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n)"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대행자(agent)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미국 생활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법률센터(초기 이민자 봉사센터)에서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유학 전문가가 교민들을 위해
횡수에 제한없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바랍니다.

- 유학생(ESL 포함)전학 및 체류신분 변경
- 유학생의 학교생활 고민 상담(어려운점 및 문제점)
- 영주권 신청, F-1(학생), E-2(소액투자), R-1(종교)및 종교이민
- 아파트 분쟁
- 소액재판
- 민사소송
- 이혼
- 법인 설립
- 재정 보증
- TAX & Accounting (세금 절약 방법 안내)

이민국 서류 거절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www.migukguide.com
migukguide@gmail.com

문의: 213)272-7498
130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Olympic + Union에서 동쪽으로 4블럭)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이야기

한국 최초의 수세자(受洗者)는 누구일까?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한국 개신교회사에서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 개신교 시작의 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수세자를 찾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김인수 목사 (미주장신대 전 총장)

는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확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한국 해안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때, 서양의 선진 기술문명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외지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이 만주와 일본에서 나타났다.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는 1862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했다. 또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중국 산동성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로 매부, 처남 사이인 이 교회 소속 선교사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cIntyre)는 1872년에 중국 산동성에 도착하였다. 이 두 선교사는 한국에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한국 개신교 선교에 혁혁한 공로를 남긴 이들이다. 이들은 그곳 선교회의 결의에 따라 임지를 만주의 영구(營口)로 옮겼다.

로스는 이곳에서 모국인 영국 선교사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소식은 로스로 하여금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만들었다. 1874년, 그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평안북도 의주 건너편에 있는 고려문(高麗門, Korean Gate)을 방문했다. 고려문은 약 3천 명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국과 만주 사이의 교역 중심지였다. 로스는 이곳에서 한국인 상인 한 사람을 만나 한국에 관한 상황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를 통해 간단한 한국어를 익혔다. 이 사람이 한국인 최초 수세자 중 하나인 백홍준(白鴻俊)의 부친이다. 이 여행에서 로스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 하였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과 외국 종교에 대한 경계가 삼엄함을 파악하였다.

대강의 물정을 살피고 돌아온 로스는 1876년 다시 고려문을 방문하였다. 이때 평안북도 의주에 사는 청년 이응찬(李應贊)을 만났다. 그는 홍삼장사 차 이곳에 왔다 로스와 그의 서기를 만난 것이다. 이응찬은 한국어 어학 선생이 되어 달라는 그들의 청을 받았다. 그는 이에 동의하고 영구로 가서 로스에게 한국어와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그의 고향 친구인 백홍준(白鴻俊), 이성하(李成夏), 김진기(金鎭基)가 영구로 왔다. 그들은 매킨타이어와 그곳 병원의 어학 선생이 되었다.

이곳에서 네 청년들은 선교사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면서 가깝게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한사코 기피하였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조선 조정이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는 자를 극형에 처하는 무서운 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접하는 선교사들과 복음의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1876년, 그러니까 그들이 어학 선생으로 영구에 온 지 3년 만에, 신앙을 고백하고 매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최초 한국인 개신교 신자가 탄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한국 개신교의 시발이다. 이 일에 대해 로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매킨타이어는 네 명의 학식 있

이 일 후, 같은 의주 청년인 서상륜(徐相崙)이 동생 경조(景祚)와 함께 홍삼장사를 하러 영구에 왔다. 그런데 서상륜은 그곳에서 심한 열병에 걸려 생명을 잃을 위중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이들을 만난 로스는 즉시 서상륜을 그곳 선교부가 경영하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성을 다해 간호해 주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서상륜은 퇴원 후, 1879년 로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만주에서 입교한 의주 청년들이 이곳에서 이른 역사적 과업 가운데 하나는 한글 성경번역을 도와 출판한 일이다. 로스는 한글 성경번역의 과업을 수행할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로스는 먼저 한글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필요를 느꼈다. 그는 의주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1877년에 한국어 입문서 (A Korean Primer)를 출판하였다. 이어, 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공부에 힘을 기울여, 1879년에는 한국의 고대와 근대 역사서(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를 출판하였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기독교를 이해시키기 위한 기초 문서인 「예수성교문답(聖教問答)」과 「예수성교요령(聖教要領)」이 1881년에 발간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개신교 문서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일은 성경번역을 위한 기초 작업 일뿐, 성경번역이 궁극적 목표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로스는 의주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신약성경번역에 착수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882년 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한지(韓紙) 51쪽의 책자로 엮여 나왔다. 비록 쪽복음서였지만, 이는 만만 년 우리 역사에 우리글로 된 최초의 성경이며 또한 최초의 성경출판이었다.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쉬운 우리 글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해 5월에는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 3천부가 출판되었다. 이 두 책이 출판되던 해인 1882년에 한·미간에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제 한국에 미국공사관이 들어오고 한국과 미국의 교류시대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에 우리 민족의 마음이 열리게 된 일이고, 육적으로는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활짝 연 단초가 된 일이다.

1884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출판되었으며, 계속해서 남은 성경들이 번역되었다. 드디어 1887년 신약 전체 번역이 완료되어 「예수성교전서」 5천부가 심양의 문광서원 출판으로 간행되었다. 성경번역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외지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출판된 일은 일찍이 세계 선교 역사에 거의 없는 기록적인 사건이다. 첫 개신교 수세자가 나오고, 첫 한글 번역 성경이 출판됨으로써, 이제 한국 개신교 역사는 그 잠엄한 막을 올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특은이 아닐 수 없다.

(계속)

칼빈대, 개교 60주년 맞아 기념사업 활발

칼빈대학교(총장 김재연 목사, 이사장 김진웅 목사)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올해 기념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재연 목사 (칼빈대 총장)

칼빈대는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문 선교사들과 세계적 권위의 신학자들을 초청해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대학원에서는 역량 있는 기독 CEO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영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칼빈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교 가운데 등록금 인하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며칠 전 추경 예산 심의에서 학교 재정이 많이 개선돼 적립금을 적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복지와 교수연구비도 증액했다. 이번 입시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지원자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 학생 충원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이 대학 동문 출신 인사들에 대한 기본 소식들이 전해졌다.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감사로 섬겨온 려용덕 박사는 지난날 10월 웨슬레 재단에서 한국교회원로목회자대상을 수상했고, 김진웅 이사장도 같은달 28일 서울시 교회와사회청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또 이 대학 김재연 총장이 지난 7일 한복음주의신학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동운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교회 및 선교회 목록. 각 교회별로 담임목사, 주소, 연락처, 예배시간, 특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예: 갈릴리선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제일교회,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새로남교회,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요한선교회, 영생장로교회, 임마누엘선교교회, 지구촌 농업선교회, 충현선교교회, 한우리장로교회, 박현성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등.

교회 미션 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통(通)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애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만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할-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가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세리투스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베리투스채움)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역)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미주성결교 서북부지방회 신임 회장에 강재원 목사 선출



미주성결교회 제34회 서북부지방회가 워싱턴 주 옥하버 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미주성결교회 제34회 서북부지방회가 지난 2월 3일 부터 4일까지 워싱턴 주 옥하버 사랑의교회(김철근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이번 지방회에서는 임원선출을 통해 회장 강재원 목사, 부회장 이근택 목사, 서기 주환준 목사(오레곤선교교회), 부서기 구자민 목사(포틀랜드성결교회), 회계 김철근 목사, 부회계 이광천 장로(오레곤선교교회)가 2014년도 임원으로 섬기게 됐다. 회무에서는 옥하버 사랑의교회 개척예배(3월 1일)건, 양성환 목사 브라질 선교사 파송의 건, 양형식 전도사(포틀랜드성결교회) 목사 안수를 위한 설교 시연 등이 진행됐다.

1부 개회예배는 이근택 목사(캐나다 밴쿠버예배교회)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강재원 목사(은누리성결교회)가 담전 1장 3-8절을 중심으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김원식 목사(보이시성결교회)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진 후, 양성환 목사(오레곤제일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이던 옥하버 사랑의교회 새벽예배 때는 양성환 목사의 설교로 옥하버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대의원들이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故 임수식 목사 천국환송예배 “생명수 강가에서 만나요”



임수식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3일 저녁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다.

뉴욕 이민초기에 낙원장로교회(현 선한목자교회)를 개척 크게 부흥, 성장시켰던故 임수식 원로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3일 오후 8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다. 임수식 목사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 질병으로 향년 78세의 일기로 소천했다.

천국환송예배는 황영진 목사의 집례로 신성능 목사 기도, 박준열 목사 설교, 엄달호 목사 약력소개, 고인회고 영상, 임요한-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김형훈 목사 조사, 선한목자교회 찬양대 조가, 임정현 장로 유가족 인사, 황동익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박준열 목사는 ‘생명수 강가에서 만나요’(계22: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소천하시기 얼마전 병원에서 뵈을 때 당신께서 몸에서 빠져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하시며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 때 하나님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느꼈고 오늘 본문이 그 때 함께 목망하며 나섰던 말씀이다. 함참 어르신이지만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읽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라고 회상했다.

박준열 목사는 “故 임수식 목사님은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던 분이요. 그런 신앙을 후손들이

이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자. 우리 모두 생명수 강가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들 임요한 씨는 “폭설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천국환송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뤄주시는 선한목자교회 관계자 분들께게도 너무도 감사하리다”면서 아버지故 임수식 목사에 관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황영진 목사는故 임수식 목사에 대해 “힘든 이민초기 한인들과 함께 척박한 곳을 개척해 영적인 중심을 세운 훌륭한 신앙인이자 변함없는 순수한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서 “저에게는 목회에 관한 조언도 아끼지 않은 상담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故 임수식 목사의 장례는 선한목자교회장(장례위원장 황영진 목사)으로 치러졌다.

고인의 유족은 장남 임요한, 차남 임디모데, 장녀 임성혜, 차녀 임혜경 등 2남 2녀다. 진복순 사모는 4년 전 소천했다.故 임수식 목사는 1936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63년 결혼 후 72년 도미해 82년 낙원장로교회(현 선한목자교회) 조대 담임 목회자로 시무했으며 2004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김대원 기자

애틀란타교협과 한인회, 노인회 방문해 성금 및 물품 전달하며 격려

애틀란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임연수 목사) 임원진이 6일(목) 오전 11시 애틀란타한인노인회(회장 나상호)를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협은 교회가 먼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범을 보여 한인들이 경로사상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매년 구정을 전후해 노인회를 방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임연수 교협회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라. 또 신앙으로 외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해 즐거운 노년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애틀란타한인회(회장 오영록) 역시 방문해 노인회 품물단응 장비들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장비는 지난 2월 1일 공연을 가진 (사)한국국악협회에서 애틀란타 노인회를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다.

오영록 한인회장은 “한민족국악대축제에서 국악을 들어보니 너무나 좋았다. 앞으로 노인회들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해서 준비하겠다. 한인회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해달라. 더 자주 방문하고 좋은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앤더슨 김 기자

김승욱 목사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미국 부흥 주역 돼야”



김승욱 목사(할렐루야 교회)가 시애틀 온누리교회에서 신년 사경회를 인도하고 있다.

지난 1일 부터 3일까지 시애틀 온누리교회(담임 정광호 목사) 신년 사경회를 인도한 김승욱 목사(분국 할렐루야교회)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가 미국의 부흥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욱 목사는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를 통해 미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라며 “디아스포라 1세의 희생적인 영성과 2세

대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 영성이 하나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영적인 자산처럼 흘러가고, 그 기도의 영성으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한인 교회를 온 세계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믿음의 길 가운데 때로는 앞이 보일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된다”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각성과 부흥을 꿈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핍박과 고난, 환란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유혹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믿음으로 상황과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브라이언 기자

리치몬드 밀알선교단 창단, 이사장으로 배현찬 목사 추대



리치몬드 밀알선교단이 2월 5일 주예수교회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3대 목표로 하여 세워진 워싱턴 밀알 선교단 리치몬드 지부가 미주 밀알선교단으로부터 정식 지단 승격을 받아 지난 2월 2일(주일)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에서 리치몬드 밀알선교단 창단식을 가졌다.

리치몬드 밀알은 2008년 11월에 오진욱 목사(리치몬드 단장 취임)를 중심으로 워싱턴 밀알의 지부로 시작된 이래 리치몬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매주 두 차례 모임(기도모임과 사랑의 교실)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와 복음전도에 앞장서 왔다.

이날 창단식에는 미주와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각 지부 밀알 단장들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후원을 해왔던 엠마오교회 교인들과 주예수교회 교인 및 지역의 밀알 후원자들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리치몬드 밀알 창단을 축하했다.

미주 밀알 이사장인 김만풍 목사(지구촌교회)는 설교에서 “보스턴 대학에서 기독교 사회 윤리를 전공하며 지역사회 선교에 열정을 가진 배현찬 목사님과 올해 사회 선교관 건립과 더불어 사회선교에 더욱 매진하는 주예수교회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번 리치몬드 밀알 선교단과 협력할 수 있게 하신 그 섭리하심에 매우 놀랍고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세계 밀알 부총재인 강원호 목사(뉴저지 밀알 선교단)는 “장애우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 하

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랑의 재산을 가져와 섬기는 사람과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사역”임을 강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리치몬드 밀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사를 맡은 조영진 목사(미국 연합감리교 버지니아 연회 감독)는 “지역교회들이 장애우를 섬기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또한 이번에 선임된 이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줄 믿는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서 “특별히 이번 리치몬드 밀알의 이사장으로 추대된 배현찬 목사님과 주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오래동안 헌신해 온 지역사회 선교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밀알 선교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배현찬 목사(미주기아대책 이사장, KWMC 공동의장)는 취임사에서 “10여년 전 세계 밀알 창립자이신 이재서 총재께서 다녀가신 후, 주예수교회는 꾸준히 밀알 선교를 협력하여 오던바, 이번 지단설립에 따른 새로운 단계의 후원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기로 결정했다. 교회 설립 이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선교 사역을 외면한 적이 없는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해 오고있는 가운데 새로 봉헌하는 사회 선교관 건립과 함께 밀알선교단 사역을 섬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요한 기자

故 강영우 박사 2주기 추모의 밤 열린다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로 미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던 고 강영우 박사의 2주기 추모의 밤이 오는 2월 23일(일) 오후 5시 비엔나 소재 올네이션스교회(담임 흥원기 목사)에서 열린다.

강영우 박사는 중학생 시절 외상으로 실명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연세대 문과대를 졸업한 후, 1972년 도미해 피츠버그대에서 교육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돼 교수로 활약하다 부시 행정부 7년 간 백악관 직속 장애인권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다. 2006년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등의 미국 대통령, 록펠러,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 등과 함께 127인의 위인으로 선정되어 루스벨트 홍보센터 강당의 기념 의자에 기록되기도 했다.

강 박사의 저서로는 ‘빛은 내 가슴에’(기독교

교방공사), ‘강영우 박사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법’(두란노 서원), ‘교육을 통한 성공의 비결’,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석은옥 공저), ‘아버지와 아들의 꿈’,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내 안의 성공을 찾아라’(이상 생명의말씀사 간) 등 영어판을 포함 총 14권이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강영우 장학회는 “시각장애의 장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삶을 살아 전 미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고 한국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상을 받으신 그분의 고귀한 삶을 추모함으로써 한인 2세들에게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이라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한인 시각장애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요한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이대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금요일아예배 오후 8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마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은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원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오후 12:30 (분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일예배 (수) 오후 7: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사랑으로 온 세계를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00

우대권 담임목사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영원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요일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회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 (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랑입니다'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블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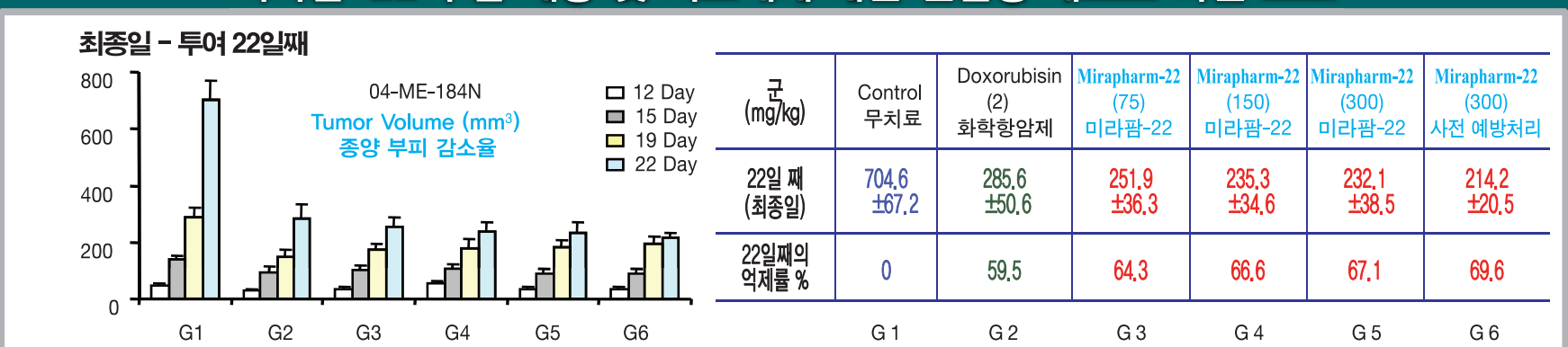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부활절 연합예배 분열 고착화 '연합' 취지 무색

한기총과 합동, '교단 연합' 측의 동참 요청 거부하고 각각 독자 추진

올해도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된 '부활절연합예배'는 요원해졌다.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되는, 유일한 연례 행사"라는 표현은 무색해진 지 오래다.

부활절연합예배 준비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것은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들이었다. 이들은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를 양 기관 소속 교단 중심으로 드리되 한교연과 NCCK의 이름은 내려놓음으로써, 가급적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고자 했다. 때문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나 비회원교단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기총에서는 이미 별도로 부활절연합예배 계획을 세우고 장소 선정 등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측도 7일 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부활절예배를 드릴 것을 결의했다. 합동측과 같이 최근 한기총 탈퇴를 선

언하거나 한기총과 거리를 두고 있는 다른 교단들도 부활절연합예배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써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2011년부터 4년째 파행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 정도도 심해지는 양상이다. 본래 한국교회의 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주관으로 드려오다가, 2006년부터 한기총과 NCCK가 주최하는 공동으로 하되 주관은 번갈아가는 식으로 진행해 왔다. 몇 년 전 한기총이 내부 혼란에 빠지면서 단일 부활절연합예배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한기총이 내용으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해 부활절연합예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으나, NCCK측이 예배를 주관할 차례였기에 큰 차질은 없었다. NCCK측이 자발적으로 주관 단체 명의를 사용하지 않기로 제안하고 이를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수용하면서, 한국교회가 함께한 부활절연합예배라는 명분은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부활절연합예배의 분열이 본격 시작되고야 말았다. 이 해에는 한기총이 예배를 주관할 차례였으나, 한기총 내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교단 연합'이 중심이 되어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먼저 선포하자, 한기총도 자체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구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고착화·심화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계에서는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된 부활절연합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웅 기자

"큰 그림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도모하겠다"

한교연 제3대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취임 감사예배



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제 3대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10일 오전 서울 개봉동 한영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예배는 한교연이 주최하고 예장 한영총회와 한영신대, 서서울중앙교회, 제우한영훈목사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영훈 신임 대표회장은 이날 취임 감사의 말씀을 통해 "한교연의 대표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더 실감하게 됐다. 그것은 큰 그림에서 한국교회와 한교연의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라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한교연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은 먼저 감당하고 기쁨은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축하 및 격려의 순서에선 피종진(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최성규(한교연 명예회장)·김동엽(예장통합 총회장)·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장종현(예장백석 총회장) 목사, 노승숙 장로(제우후원회 명예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피종진 목사는 격려사에서 "한영훈 신임 대표회장님과는 30년 동안 함께 일하며, 그에게서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다. 그는 무슨 일이든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에 더욱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성규 목사 역시 한 목사를 격려하며 "어느 자리에 서든 늘 섬기고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한영훈 목사님이다. 앞으로 한 알의 밀알처럼 한교연과 한국교회, 사회를 위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김동엽 목사는 축사에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 장을 열기 위해 한교연이 창립됐다. 한영훈 목사님께서 그 창립정신과 정체성을 더욱 살리셔서 한교연의 발전을 이끄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영훈 목사도 "십자가 영성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섬기신다면 한국교회와 사회가 더욱 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종현 목사는 "한영훈 목사님은 신학자요 목회자, 교육자로 한평생을 사신, 훌륭한 지도자"라며 "한교연이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를 맞아 더욱 강한 영성으로 교회와 사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1부 순서로 진행된 예배에선 정서영 목사(예장합동개혁 총회장)의 인도로 김성동 장로(서서울중앙교회 수석장로)가 기도했고,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가 설교했다. 이후 김명찬 목사(예장한영 총무)가 광고, 한영길 목사(예장한영 직전총회장)가 축도했다.

'모세의 리더십'(민 11:23-26)을 제목으로 설교한 김요셉 목사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셨다. 한영훈 목사님 역시 그렇게 준비된 분"이라며 "모세가 광야에서 불기둥·구름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한 목사님께서도 한교연은 물론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軍과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빛과 소금 되길"

한장총, 1,700여 훈련병 대상으로 진중세례식 거행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유만석목사)가 8일 오후 2시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훈련병 1,700여명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실시했다. 세례집례는 한장총 회원교단 목사, 장로 50여 명이 담당했다.

이날 예배는 광성현 목사(예장성경총회회장)가 대표기도를 전했으며, 김명찬 목사(예장한영 총무)가 성경봉독을 담당했다.

류준배 목사(정남중앙교회)는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후5:17)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1700여 장병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며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며,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당한 의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세례 받으므로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서 "자원이 다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대신 세례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은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말씀대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사회를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세례를 받는 장병 모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인생이란 100년도 못되는 짧은 삶을 살다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천국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시민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 목사는 "오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새로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세례를 받은 장병들은 훈련을 잘 받고, 자대에 배치되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모범적인 군생활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 사회를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기독교인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병사들이 되 달라고 축원했다.

설교에 이어 축사를 전한 한장총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는 "힘든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나오게 됨을 축복한다"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유는 목사(예장합동총무)와 표스데반 목사(예장개혁총무)가 세례받은 훈련병들에게 전달되는 선물을 훈련병 대표 2명에게 각각 전달하고, 수원명성교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명성사문과이어' 합창단이 대표찬양을 통해 은혜를 선사했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한장총 관계자는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의 전도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진중세례식을 통해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 대한 복음전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작은 교단이 단독으로 훈련소 진중세례식을 하기에는 인적·물적인 뒷받침이 어렵기에, 이번 세례식을 통해 작은 교단에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윤 기자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훈련병 1,7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신타페 언어·문화 교육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926.1023 | Fax 562.926.1025 | office@ptsa.edu www.ptsa.edu

ESL 과정

신타페 언어·문화교육원이 속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TSA)는 가족교육국(BPPE) 인가기관,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 학교로 I-20 Form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F-1 Visa를 위한 I-20 Form 정식 발급!!

- ✓ 원어민강사로만 모든 수업 진행.
- ✓ 담당 교수제를 통한 철저한 학습관리.
- ✓ 다양한 어학프로그램 및 시설.
- ✓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화 집중 향상.
- ✓ ESL 과정 수료 우수 졸업자 Internship 소개.

- 자유로운 수업 선택 : 주간 종합반, 야간 종합반, 주중 집중 종합반, 단과반으로 구성.
- ★ 신타페 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은 전세계 130여 개 캠퍼스, 35,000여 명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는 'English Miracle'의 과학적 영어어학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영어로 배우는 스페니쉬 강좌도 있습니다. 별도문의

문의 전화: 562-926-1023 Director 강우중 교수 (wjkwang@ptsa.edu)

8주 완성 웹사이트 제작과정

워드프레스보다 쉬운 XpressEngine (XE보드, 구 제로보드) **초보자도 문제없다! 튜토리얼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초보자도 만들 수 있는 쉬운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포토샵 CS6에서 배너 만들기 제작 과정 포함!!

- ✓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용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개발에 참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인에게 Word Press보다 훨씬 편하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편집 디자이너, 일반인 환영!!

★ 지난 1월 21일 '두 시간만에 끝내는 웹사이트 제작' 공개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현재 3분이 공개강연만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셨습니다. 상담: memaidk@naver.com

- Photoshop CS6 / Dreamweaver CS5 (CSS Style, HTML 코드 강화) Flash CS5 (애니메이션, 액션스크립트 실무) 강좌 별도문의

상담 전화: 714-576-0901, 213-909-2371

아브라함 카이퍼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한국성경신학회, 제33차 논문 발표회 개최

한국성경신학회(회장 박형용 박사)는 지난 10일(월) 서울 반포동 소재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과 우리'라는 주제로 제33차 정기논문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김진수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가 '아브라함 카이퍼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박태현 박사(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소고', 조무성 박사(고려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카이퍼와 공적신학의 영향: 한국교회의 발전적 적용',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카이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창조, 재창조,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카이퍼의 이론을 살핀 김진수 박사는 "카이퍼는 먼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성령의 사역이 지향하는 바는 단순히 택자들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옹호하고 변호하여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카이퍼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내재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으로 나누었

으며 내재적인 사역에서 창조, 구속, 성화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구분 없이 해당되나 외향적인 사역에서 창조는 성부에게, 구속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돌리게 된다고 본다. 또한 카이퍼는 고린도전서 8:6, 로마서 11:36에 근거하여 성부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성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조성하시는 '건축자'이며, 성령은 만물을 그 정해진 의도에 맞게 발전시키고 완전히 하시는 분으로 설명했다.

카이퍼가 설명한, 창조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세기 1:2은 성령께서 창조에 관여하신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성령은 새가 새끼 위에 날개를 펴고 땀뚝 두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둘째, 성령의 활동이 배아 상태로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활동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적 활동에 분배는 있지만 분립은 없다. 셋째, 성령은 인간의 창조에도 관여하셨다. 창세기 2:7에 묘사된 하나님의 '불어넣기'는 성령과 관계된 일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인격을 주셨다. 성령은 각자의 개성과 인격에 불꽃을 점화하고, 생명의 열기를 나누어주시는 일을 하



한국성경신학회는 지난 10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제33차 논문 발표회를 열었다.

또한 인간이 저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카이퍼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성령께서 준비하신 교회에 주신 책이며, 성령의 사역은 마술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수행하신다'고 설명하였다. 카이퍼는 '성령께서는 성경 기록을 위해 개인(아담, 에녹), 가정(노아, 아브라함), 국가(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 각각의 단계에서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을 시작했으며 '구원의 말씀'에 이어 '구원의 사실'이 뒤따라오게 하셨다. 성령께서는 또한 기적에 사용되는 인간 수단과 기적을 베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는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 '영감'이라고 불리는 전 포괄적인 활동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완전하고 무오한 경전을 주셨다. 기록이 있기 전 성령께서는 '구두전승'을 보존하셨다.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들의 기록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셨다. 성령에는 영감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도 없지 않지만, 그런 '결림

돌'은 믿음의 훈련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ought)'이 아닌 영혼의 생명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논문 발표에 앞서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박형용 목사는 "한국교회 초창기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분명히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단호하게 벗어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성경이 말하는 가정 내 남성의 리더십이란?

생계를 책임지는 자 vs 팀원을 세워주는 리더 역할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위원회(The 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의 부대표이자 켄터키보이스대학 신학 및 교회역사학 조교수 오웬 스트라찬(Owen Strachan)은 "미국 남성들은 곤란을 겪고 있다. 우리에게 21세기 남성상이 있다. 소파에 앉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을 하는 모습으로 암각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남성을 가정에서 공급자로 부르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릴랜드 벨츠빌에 위치한 호프 크리스천 교회(Hope Christian Church)의 원로목사이자 국제복음주의교회회의의 수좌주교(presiding bishop)인 해리 잭슨 주니어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리더십은 생계를 책임지는 자라기보다는 가정의 지휘관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만약 당신이 아내가 더 많은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팀 리더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라찬은 "우리의 성별은 우리 몸

에 맞게 디자인됐다.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듯 남성은 리더이자 보호자이며 가정의 부양자로 부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찬은 타락 이후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노동이며 이브에게는 출산"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출산 행위만 의미하지 않는다. 아담이 땅의 식물을 얻기 위해 고생하듯, 이브는 집안일로 고생한다"고 말했다. 이 신학교수는 여성에게 집안일을 위임한 특정 성경 구절을 언급했다. 그는 "디도서 2장 5절에서 여성은 집안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남성은 집안 어디에서도 일꾼으로 부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신학자는 여성의 가정일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내 아내의 수많은 재능을 매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도록 일한다"며 "하나님은 여성을 신체적, 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으셨다"고 말하며,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또한 잠언서 31장을 언급하며 여성은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며 "복음주의자들이 경제적 가치로 우리 자신을 환산하는 유사 마르크스주의를 사들였다"고 말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상품시장의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교회의 성도, 다른이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스트라찬은 교회 내에서 여성이 여러 분야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로나 목사가 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예배를 이끄는 것에서부터 육아 및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내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이 논의는 환원적이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잭슨은 가정 내 남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 리더십이 전체의 선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를 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지혜롭게 이끄는 것이 남성의 최우선적인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는 "두 사람 다 중요한 직업을 지닌 현대 가정에서, 당신이 양육을 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둘 중 누구의 직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나는 남성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21세기의 현명한 리더십은 상담가적 역할이다" 그는 다투어 왕이 된 후 각자과장들과 상담하는 장면인 역대기상 12장을 예로 들었다. 잭슨은 "그는 그들이 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한 직무상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에 그들과 상의했다. 그는 도움을 얻을 정도

로 지혜로웠다"며 현명한 남성은 "수백만 달러를 벌 잠재력을 지닌 의사가 될 아내를 가둬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잭슨은 에베소서 5장을 인용하며 "아내는 남편과 주께 복종하라"는 용어가 군사 용어를 지적하며, 이는 자신의 남편의 전술적 목표에 자신을 맞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남성은 그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함같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 말씀이 "그녀의 경력, 열정, 욕구를 고려해야 하며, 그것들을 적어도 자신의 직업과 열망과 같은 수준으로 놓아야 함"을 의미하고 주장했다. 주디 한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라, 김중언,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방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개월분 195봉

하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크렌베리 중에 100배 이상 농축된 파크렌 크렌베리가 농축되고 식약청이 요로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공인한 제품이니 너무 좋습니다. 오줌소태, 방광염, 요실금으로 힘드세요?
새종 요로정보감으로 잡으세요.

“이제 멀리 외출해도 자신 있어요”

오줌소태, 요실금, 전립선건강, 방광, 요로건강 개선

새종 요로정보감

주요성분 및 효능
 파크렌 크렌베리, 호박액기스, 콜라겐, 마그네슘, 철분, 엽산, 건조효모 등
 크렌베리종의 크렌베리 "파크렌 크렌베리"
 미국 DBS(데카스보테니컬사)의 다국적연구 프로젝트과정 중 기존의 크렌베리보다 수십배의 효능을 가진 파크렌 크렌베리를 개발. (미국, 영국 등 특허)
KFDA 공인내용
 요로의 유해균 흡착제로 요로건강에 도움

새종요로정보감(파크렌 크렌베리) 인체시험결과
 요로, 빈뇨, 하복부 통증 호소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 - 효능 입증
 - 미국 크레이튼 대학의 임상으로 증명된 파크렌 크렌베리 효능 입증
 참고: (영어) www.pacran.com (한국) www.pacran.co.kr

새종요로정보감은 이런분이 드시면 좋습니다.
 - 요로감염, 빈뇨, 오줌소태, 전립선장애, 방광염
 - 요로감염으로 요통을 호소하는 자
 - 하루 소변을 8번 이상 보는 분이나 빈뇨증
 - 오줌소태나 방광염으로 걱정하시는 분
 - 소변의 악취나 배뇨시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전립선의 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
 - 신장, 요로, 방광, 전립선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은 분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출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퍼스트레이디
 "갱년기 여성, 생리불순"
 "불가리아 장미오일 캡슐"

高麗발효삼
 "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약초 생명연구 개발"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 2층)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아가페와 필리아(2)

3. 예수님께서 희랍어를 사용하셨는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의 질문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세 번째 질문에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때에 희랍어를 사용하셨다는 전제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랍어를 사용하셨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요즈음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당시에 일반인들은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중동지역의 공용어인 아랍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랍비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보수파 지식인들은 히브리어를, 진보주의적인 지식층 및 상류층은 희랍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로마 군인들과 관리들은 희랍어와 라틴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는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희랍어로 쓰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요19:19).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단체들 가운데서 기독교공동체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쿨란공동체(Qumran Community)의 경우를 보면 발굴된 문서들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서의 수는 822개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나머지 소수만이 아랍어와 희랍어로 쓰여

있다. 그 정확한 수와 비율을 보면 그 90%에 달하는 736개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반면 아랍어로 된 것과 희랍어로 된 것은 각각 61개와 25개로 이는 각각 전체의 7%와 3%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이 공동체는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고 희랍어를 사용하였으나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 즉 공식 언어는 히브리어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히브리어를 “계시된 언어”(revealed language), “창조의 언어”(language of creation)라고 하여 당시의 통용어인 아랍어와는 구별된 언어 즉 거룩한 언어(sacred language)로 생각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초기 기독교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쿨란공동체의 회원들은 전에 사제였던 사람들과 이들의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특히 모세 5경(Pentateuch) 연구가 이들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초기 기독교인들보다는 지적 수준이 높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서로 자기들이 참된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사용한 언어에도 공통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쿨란공동체와 같이 초기 기독교공동체에서도 히브리어를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실 참된 이스라엘인을 자처하는 기독교공동체가 아랍어 대신에 히브리어를 선호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열두 제자들보다 희랍어를 훨씬 잘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희랍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히브리어 대신에 희랍어로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여기서 히브리어는 아랍어를 뜻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막 15:34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랍어이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시의 통용어인 아랍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인지 모른다. 히브리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이다. 만일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시의 공용어가 아랍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아랍어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마가복음이 원래는 아랍

어로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던 원본문서가 아랍어로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예수님께서 지식수준이 낮은 일반대중들을 상대하실 때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교육받은 자들이나 측근의 제자들을 상대하실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희랍어를 사용하셨다는 기록이나 힌트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희랍어를 모르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수님께서 희랍어를 사용하셨다는 언급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4. 히브리어성경과 70인 역

따라서 요한복음 21:15-17의 경우에는 희랍어 대신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히브리어에서 “사랑하다”라는 뜻을 지닌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아하브”(ahav)이다. 이것은 아랍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bh'a)). 히브리어에서는 신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구별 없이 “아하브”가 사용된다. 70인역에서 이 동사는 때로는 “필레오”로 때로는 “아가파오”로 번역되었다. 예를 들면 창 37:3-4에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아하브”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70인 역에서는 처음 “아하브”는 “아가파오”로, 두 번째 “아하브”는 “필레오”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70인 역에서도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아무런 구별 없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술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아가파오”가 사용되었다. 말을 바꾸면 “아하브”가 신적인 사랑을 뜻할 때는 항상 “아가파오”가 사용되었으나, “아가파오”가 인간적인 사랑을 뜻하는 경우에도 사용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남녀 간의 무절제한 사랑 또는 육욕적(肉慾的; carnal)인 사랑을 뜻하는 말로 “아가브”(agapē)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혼음하였다고 비난하시는 말씀에서 사용되었다. 이 말이 에스겔서 23장에서 6번 나오는 것을(23:5,7,9,12,16,20) 제외하곤 그 분사형(participle)이 예레미야 4:30에 단 한번 나온다. 70인 역에서는 이 동사를 번역할 때에 세 개의 다른 동사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매음하다(εἰκονοποιέω; eikonopoiēō)이다. 그 외에 “하쉬크”(hask)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 외에도 “좋아하다”, “무엇을 즐겨워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 말이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는 창 34:8과 신 21:11인데, 70인역은 이를 각각 “선호하다”의 뜻을 지닌 “프로아이루마이”(proairōmai)와 “마음에 두다”, “욕구하다”라는 뜻을 지닌 “엔투메오마이”(entumeōmai)라는 동사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신 33:3에 나오는 “하바브”(habav)가 있는데, 70인 역에서는 이 말이 “아끼다”, “면하게 하다”(spare)의 뜻을 지닌 “페이도마이”(peidomai)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아가파오”나 “필레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모두 “아하브”인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32)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32회)

Who are you talking to?
당신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I am talking to my mother.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now?
당신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중인가요?
I am going to the store.
가게에 가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buying at the store now?
지금 가게에서 무엇을 사나요?
I am buying a green jacket.
나는 녹색 재킷을 사고 있습니다.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Why are you going to the market?
당신은 왜 마켓에 가고 있나요?
I am going there to buy a soda.
소다수를 사기 위하여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Who are you going with?

누구하고 함께 가고 있나요?
I am going with my brother.
나는 나의 형과 가고 있습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32회)

People who do evil things hate the light and will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y do not want their evil deeds to be shown up. But people who do what is true come to the light, because the light may show that what they did was in obedience to God.(John 3:20-21).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그 빛으로 오지 않을 것이

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나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그 빛이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요 3:20-21).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32회)

The view of prevenient grace by John Wesley is particular that God reaches out to each person offering a personal relationship and ensuring each one a valid opportunity to respond to divine revelation. Justification is also a result

of that grace, and Sanctific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Furthermore, entire sanctification is understood as the love of God and others. 요한 웨슬레의 선재적 은혜의 관점은 특별하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계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도록 근거가 확실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 사람에게 다가간다. 정의는 또한 그 은혜의 결과이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완전 성화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웨슬레 신학의 어록 중에서).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노동, 직업 그리고 교회

정병길 | 성약 | 312쪽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지체로서 수행하는 참된 노동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신자야말로 참된 노동 가치를 구현할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노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 사전

안병욱 | 예원북하우스 | 258쪽

얼마 전 94세를 일기로 별세한 안병욱 선생이 그동안 집필하고 발표했던 글들 가운데 삶과 관련한 글들을 따로 모아 만든 '인생 총론'. 행복·사랑·기쁨·마음·삼·덕·예수·도전 등 8개 단어를 강조하는 부분은 박웅현의 책을 떠올리게 한다. 저자는 유언을 쓰는 심정으로, 짧은 글이지만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전도서 속의 그리스도

이근호 | 대장간 | 176쪽

전도서는 예루살렘 왕의 가르침으로, 허무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온통 허무를 뒤집어쓰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계신다. 우리는 그를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다니다 보니, 그분은 우리 곁을 지나쳐 간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허무!"라고 불러줄 때만 우리는 의미를 얻게 된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조정민 | 두란노 | 284쪽

'불교계에 헤민 스님이 있다면, 기독교계에는 조정민 목사가 있다.' SNS 스타인 저자의 트위터 잠언록 시리즈 네번째 책이다.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새로운 길을 가기 원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 낯선 일을 앞두고 힘을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REVIEW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소멸시키라”

존 오웬의 「죄 죽임」

이 책은 옥스퍼드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1616-1683)이 행한 연속 설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시 학생들 나이가 13-17세 정도였으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다.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의 메시지는 참된 복음적 경건의 핵심을 심도 있게 증거하였다. 당시 오웬은 영국 안에서 참된 복음적 경건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 핵심인 죄 죽임의 삶이 잊혀 버렸다고 탄식하였다. 오웬에 따르면, 참된 신자들은 한평생 내재하는 죄의 힘을 죽이는 일을 업무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

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죄를 죽일 때 성령이 배제된 다른 모든 방법은 헛되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 얻는 모든 도움도 무익하다.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 행해야 한다. 자기 힘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죄를 죽이는 것은 결국 자기 의에 이르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의 본질이자 특징이다. 죄 죽임(mortification of sin)의 과정에 있어 성령과 관련된 두 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오웬은 잘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고행이나 금식 등을 통해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여러식음이다. 또다른 하나는 이 일을 성령께만 돌리고 자기는 힘쓰려 하지 않는 경우다. 많은 복음주의적 신자들이 이런 경향을 가진다. 은혜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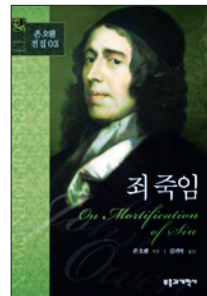
오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억지를 가하시거나 우리 없이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죄 죽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은혜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죄 죽이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활성화된다. 존 오웬에게 있어서 '죄 죽임'은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의 약화이며,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의 소멸이다. 그러나 신자가 죄를 죽인다는 것은 완전히 죽여 존재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웬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죄 죽임이라고 강조한다.

구원받은 신자는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죄는 이러한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이다. 신자는 마음 안에서 작용하

는 죄의 성향을 자각한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본성도 갖고 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를 갈망한다. 죄 죽임의 실천에 자신을 드러내는 신자는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救贖)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러한 삶의 반복을 통해 신자는 정욕을 이기고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된다.

우선 죄 죽임은 오직 신자만이 할



죄 죽임
존 오웬 | 부흥과 개혁사 | 195쪽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단 하나의 죄도 죽일 수 없다. 오웬은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성령 없이 다른 모든 수단만 믿고 무익하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에 속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명령은 무슨 뜻인가? 몸의 행실은 육신의 행실이다. 여기서 몸은 우리 본성의 부패와 타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몸이 뜻하는 것은 '내재하는 죄' 곧 부패한 육체 또는 육신(탐심)이다. 몸의 행실은 '육신의 행위', 곧 외적 행동을 주로 가리킨다. 바울은 욕심이 일으키는 모든 것을 '행실'이라는 말로 부른다. /송광택 목사(충신대 평생교육원/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원)

혈당조절, 세포노화방지 **포르테**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요로청보감** 세종 **뇌보감 골드**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배뺄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참된 희망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 펴낸 ‘땅콩’ 김광남 선생



김광남 선생은 “기독교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의도 있어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 출판계에서 ‘예레미야’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김근주 교수(스헤미야)의 <특강 예레미야(IVP)>가 발간된 데 이어, 평신도 신학자인 김광남 선생의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아바서원)>가 나온 것.

특히 이 책은 2014년 현재의 ‘땅콩’ 선생이 2천 4백여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서울로 초청해 4일간 ‘대담’을 나누는 특이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4백년 간 이 땅에서 살았던 외계인 ‘도민준’이 주인공인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능가하는 ‘타임슬립’인 셈. 이 같은 ‘대화체 예레미야 강해’는 예언서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평신도들을 고려한 시도임과 동시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소리’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진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듯 참신한 시도가 가능했던 건 저자의 ‘출신 성분(?)’ 덕분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경험을 쌓았고, 프리랜서로 독립한 후에는 번역 작업과 함께 신학 공부를 병행해 오고 있다.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특이한 형식을 택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저자는 탁월한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예레미야서를 해설하면서도, 한국교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조명한다. 다음은 예레미야와 4일간의 대담을 진행했던 ‘땅콩’ 선생과의 이야기.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꽤 오랜 기간 기독교 언론과 출판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공부하는 동안,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가 고대 이스라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예언서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볼 요량으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선생님의 책과 <특강 예레미야>까지 읽어보고 새해부터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고 있는데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뿐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은 신학, 환상, 역사, 예언, 찬송, 시 등이 혼합된 특이한 형태의 고대 문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활동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선포했던 예언들을 후대의 서기관들이 모아서 편집한 책이라, 그 과정에서 연대기적 순서가 많이 무시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했던 예언이 그보다 앞선 여호야김 시대의 예언보다 앞서 있기도 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승전결 구조마저 무너져 있으니 현대인들이 읽기 쉽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책은 술술 잘 읽히던데요.

“저는 처음부터 평신도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레미야서를 통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시아-여호야김-시드기야-이집트 시절의 시대 구분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합했다고 할까요? 학문적 근거를 중시하는 학자들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했다는 말이 곧 공상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나름 애를 썼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나니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제게 ‘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면서, 무슨 용기로 그런 책을 쓴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되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레미야서를 강해하시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시느냐고요. 저는 책을 쓰기 위해 예언서와 관련된 서적 20권 이상을 정독했습니다. 우리말로 된 예레미야 주석은 거의 다 보았고, 세 번 이상 밑줄을 쳐 가며 읽은 책들도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뿐 아니라, 졸업논문 대신 책을 펴낼 요량으로 예언서와 관련해 2천매 넘는 원고를 쓰기도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의 책을 쓰는데 필요한 만큼의 공부는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체를 사용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잡지에서 근무할 때 목회자들간

의 대담을 정리해 기사화하는 작업을 꽤 많이 했는데, 그 때 대담이 갖고 있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데, 대담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일방적인 서술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상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예언서는 열 번 읽는다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지루해서 그렇게 읽지도 못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석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가 말씀드렸듯 그건 평신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책 같은 개론서를 읽는다면,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콤한 ‘힐링’ 보다, 공평과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데요.

“애초에 생각했던 책 제목은 <하나님의 힐링>이었어요. 편집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기는 했지만,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힐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온갖 힐링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똥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소소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아니라 구조적 사회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한 제도, 부당한 관행, 비인간적 경제 시스템, 부패한 정치, 패거리 문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악은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공평과 정의의 회복을 강조했는데, 그것들의 회복 없이는 이스라엘의 치유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구조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개인들에게만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참고 살라고 해서는 어떤 의미있는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치 초등학생에게 조폭 집단과 맞서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참된 희망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

을 받아들이는 용기’ 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달콤한 말로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 주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힐링은 유다가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은 당장 듣기엔 좋지만, 참된 힐링의 길을 제시할 순 없습니다. 달콤하지만 헛된 메시지가 난무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외칩니다. 어찌 보면 매국노(賣國奴) 같은 말이었지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것만이 유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타락한 설교’ 를 꼽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오직 예언자들의 말만 들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한 번 들었다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열 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만약 유다에서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 같은

이들만 활동했다면, 백성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에는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거짓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한국교회 신자들은 바보 멧청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자들로부터 타락한 설교를 듣다 보니 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타락의 일차적 원인은 ‘설교의 타락’에 있다고 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속화나 기복신앙, 물량주의, 권위주의 등을 원인으로 거론하는데, 제가 보기 그것들은 다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타락한 설교입니다.”

-끝으로, 왜 ‘땅콩’ 선생인가요.

“예레미야의 대담 파트너로 누굴 세울까 하는 고민을 함참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학자를 등장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다 못해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회자라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대화의 내용이 고담준론(高談峻論)으로 흐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가기로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충분히 무거우니, 대화 상대자는 가벼워도 좋겠다는 생각에 아주 만만한 인물인 ‘땅콩 선생’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낸 겁니다. 아, 그리고 ‘땅콩’은 제 어릴 적 별명이에요(웃음).” 이대용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장애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상경추 교정, 경추 교정, 척추 교정, 체형 교정, 관절염, 자세 교정, 허리 디스크 교정, 골반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긋하여 허리가 아픈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닦!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울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되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Grand Opening Sale"

• 그랜드 오픈 기간에만 특별가 제공 •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15,000 스퀘어 피트 뉴스룸 오픈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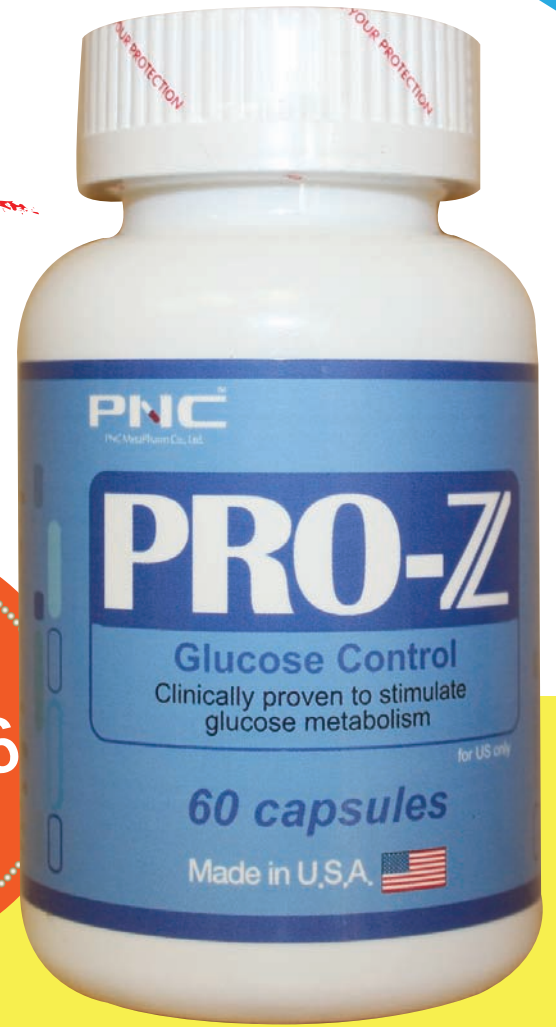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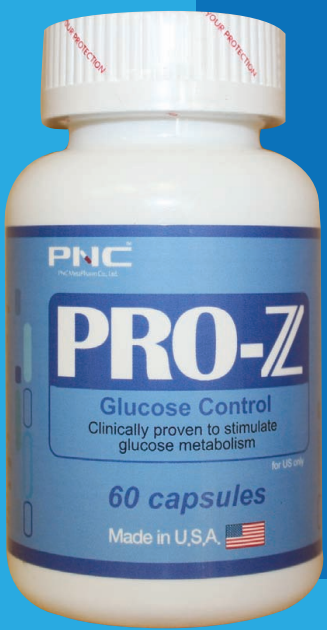
프로지 효능사례

박 OO 장로(당뇨 15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1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박 OO 목사(당뇨 2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2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3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인슐린 주사도 끊고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2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고박고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여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프로지 셀러 모집중

프로지 판매처

당뇨 전문 치료 한의원
실로암 한의원

Tel . 213.427.0036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621 S. Virgil ave, Suit 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